

목포해상케이블카 준공 '눈앞'

9월 6일 정상운행 목표 마무리 공정 진행 국내 최장 3.23km(해상 0.82·육상 2.41)

올 가을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은 유달산과 다도해의 비경을 품은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는 총 연장 3.23km(해상 0.82, 육상 2.41)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목포해상케이블카의 개통일정을 사업시행자인 목포해상케이블카(주)와 협의한 결과 오는 9월 6일(금)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포해상케이블카는 지난 5월 거의 모든 시설물(승강장, 주차장, 지주 등)

설치를 완료하고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마지막 공정인 메인로프 설치과정에서 미세한 풀림현상이 발생하여 시행사인 목포해상케이블카(주)에서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메인로프 전체를 재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10월 경으로 개통시기를 연기한 바 있다.

목포해상케이블카(주)는 국외에서 제작된 메인로프가 지난 7월 초에 목포 현장에 도착하여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현재는 해상구간 설치를 완료한

상태이며, 메인로프 제작 및 설치는 국외업체가 책임시공하는 일괄계약방식으로 추진하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8월 초까지 육상구간(유달산 승강장~북향승강장) 메인로프 설치를 완료한 뒤 종합적인 시운전을 거쳐 정상운행 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5월부터 목포해상케이블카의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위해 민·관 합동 안전진단팀을 구성하여 승강장 3개소, 주차장 2개소 등 전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구조물 및 시설물에 대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가장 중요한 운행준비 요소 중 하나인 교통혼잡 최소화를

위해 메인 주차장 848대(2개소)와 임시 주차장 868대(북향 주변 6개소)을 확보했다.

또, 관내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케이블카 승강장으로 가는 주요 도로에 주행 유도선을 설치하여 운전자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목포해상케이블카는 승강장 3개소 모두 승·하차가 가능하고 북포원도심, 유달산 기암괴석, 다도해, 항구 등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으며 해상을 건너는 최대 높이가 해발 155m에 이르러 국내 어느 케이블카에서도 느끼지 못하는 스릴과 감동을 선사할 전망이다.



신안군, '2019 섬 갯벌 축제' 개최한다

내달 2일부터 10일간 해양레포츠·체험 행사 다채

대한민국 섬의 수도 신안 증도에서 오는 8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섬 갯벌 축제가 열린다.

5G+ 실은 축제, 5G+ 실은 신안 주제로 카약, SUP, 패들보드, 구간마라톤 전국대회가 진행되며, 갯벌 레슬매니아(레슬링, 닭싸움), 갯벌 깃발 뽑기 서바이벌, 황금 조개 찾기 등 관광객 참여 프로그램도 펼쳐진다.

개막식은 3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DJ.DOC, 바다, 개콘서트 트윈스가 함께하는 개막 축하 공연이 진행되고 밤 10시에는 환상적인 해상 불꽃쇼가 준비된다.

축제장인 짙둥어 해변은 '한국의 발리'로 알려진 이국적인 모습을 자랑하는 곳으로 레프팅보트, 패들보드 등을 체험할 수 있고 짙둥어다리 아래에서는 갯벌 이벤트가 마련된다.

해변 앞 마당에는 풍장과 에어 바운스가 있어 온 가족이 물놀이를 할 수 있으며 주무대 주변으로 킥러미드 페이스페인팅, 갯벌 공방, 문화예술체험 등 다양한 체험부스와 홍보부스, 음식

부스가 자리 잡는다.

해양레저를 테마로 한 이번 축제는 카약, 카누, SUP, 해변마라톤 등 바다를 무대로 다채로운 해양레저스포츠 대회 및 체험도 펼쳐진다.

문화행사는 워터락 물놀이 파티 '갯벌 토도즐', 1004 아일랜드 '불꽃쇼', 바다콘서트 '섬·갯벌이야기', 노래자랑 '갯벌가왕', 한여름 밤 '갯벌 낭만 문화제' 등 다양한 야간 프로그램도 구성되어 섬 밤바다를 만끽할 수 있다.

박우량 군수는 "올해 처음 국가 기념일로 섬의 날이 제정되어 섬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섬의 수도 신안에서 가족과 연인들이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섬 갯벌축제 뿐만 아니라 입자가 도 톨립축제, 신도 수선화 축제, 도초 수국 축제 등 다양한 꽃 축제와 민어, 병어, 낙지, 왕새우 등 다양한 수산물 축제를 열고 있다.

영암군, 스토브리그 중등야구대회 개최

오늘부터 5일간

영암군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의 중등야구팀을 초청하여 24일부터 28일까지 총 5일간 영암 스포츠타운 야구장과 시종면 마한야구장에서 2019 하계 스토브리그 중등야구대회를 개최한다.

영암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영암군야구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스토브리그에는 경기 수원북중을 비롯한 전국 10개 중학 야구팀 360여 명 선수단이 참가하며, 경기는 A·B조 그룹으로 나누어 5일간 풀리그로 진행된다.

24일 오후 2시에 영암 스포츠타

운 야구장에서 개최식이 열릴 예정이며, 대회 기간 동안 다수의 학부모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선수단과 동행해 우리군 숙박시설 및 음식점 등을 이용하는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우리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전지훈련 및 전국·도단위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있다"며 "이번 스토브리그를 위해 우리군을 방문한 선수단 및 학부모에게 감사드리며,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진도군, 성교육 스타강사 구성에

초청 청년아카데미 개최

진도군이 오는 25일 오후 2시 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성교육 스타강사 구성에 대표(푸른아우성)를 초청, 청년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진도군은 지역의 성장 동력인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을 통해 공동체 기반을 마련하는 등 '희망찬 국민 번영하는 진도'에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 청년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특강은 '성교육,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라는 주제로 구성에 대표가 일반적인 성에 대한 생각, 백세시대를 맞아 성에 대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남·여 차이를 알게 되는 계기 등

을 군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성에 대해 고민을 서로 공유하고 해소하며, 아름다운 성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올바른 성교육 등을 강연할 계획이다.

청년아카데미 참석대상은 지역사회의 주역인 청년들과 올바른 성 가치관에 관심 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시간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게 청년들의 의식변화를 통해 비전과 목표를 함께 공유하고 희망찬 공동체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병영 돼지불고기 명품거리 조성 박차

이승욱 강진군수, 기관단체장 및 영업주와 간담회



강진군은 최근 이승욱 군수를 비롯한 병영 기관단체장 및 영업주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병영 돼지불고기거리 조성사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군은 지난 5월 전남도 주관의 남도 음식거리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이에 도비 5억 원에 군비 5억 원을 더해 내년 2020년까지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조형물 및 이용자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이 날 간담회는 지역 주민과 민·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업의 초기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이 오갔다.

병영 기관단체장들은 병영 5일 시장 장육 활용, 돼지불고기 음식점 영업주의 서비스 자세 및 역량 강화의 필요성, 다양한 메뉴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또 한일우 전남도립대 교수는 거리 조성시 조형물은 젊은 취향에 맞게 디자인하고 위치, 크기 등 주변 풍경과 조화롭게 설치할 것을 조언하였다.

강진=김영일 기자

무안군, 어르신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무안군이 오는 9월 19일까지 관내 읍·면 경로당 8개소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경로당 인지활력교실'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에 앞서 무안군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총 8주 동안 179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경로당 인지활력교실'을 운영했다.

군은 올 하반기에도 참여 대상을 접수 받아 인원 수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해 선정된 8개 경로당에서 매주 1회씩 8회차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

획이다.

이번 교육은 전문 인력을 통한 치매 예방교육과 건강 상담, 치매예방체조, 인지미술, 웃음치료, 노래건강교실, 슬라임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관내 고령인구 증가로 갈수록 치매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전적 매검사를 통한 치매예방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2021완도해조류박람회 국제 행사로 개최

해양수산부가 후원하고 전라남도 완도군이 공동 개최하는 2021 완도해조류박람회가 국제 행사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

28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개최한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결과 검토를 거쳐 심사를 통해 국제행사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국제 행사 승인은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목표관람객중 5%이상의 외국인을 유치하고 10억원 이상 국비 지원을 요청한 행사에 대해 기획

재정부에서 경제적 타당성과 적정성을 평가해 국제 행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제 행사 개최를 억제하기 위해 국제 행사 승인 요건을 강화해 왔다.

2021해조류박람회는 국제행사 승인으로 국비 20억원 등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2021년 4월 16일부터 5월 9일까지 개최한다.

완도=김광수 기자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